

業 界 消 息



◇ 發電所建設은 油類대신 原子力위주

劉珪鍾 動力資源部 次官은 10일 大韓商議가 지난 12日 마련한 工場長會議에서 앞으로의 에너지 供給은 석유, 전력, 석탄順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오는 91년도까지 석유의 점유율이 저하하는 반면 石炭과 電力의 占有率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發電所의 建設은 原子力과 유연탄 위주로 建設하고 특히 原子力의 비중은 총 전력에서 81년도 1.8%에서 오는 91年度엔 15.6%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韓國 原子力學會 秋季學術 發表會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 10일 忠南 大德전문연구단지내 표준연구소에서 열렸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발전소 3종부품기준 :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전공학 담당부소장 車宗熙

원자력발전소의 국산화와 연료공급 :

핵연료개발공단 부소장 鄭鎮郁

프랑스에서의 PWD연구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심계통공학실장 林昌生

노심 내 핵연료관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과 부교수 金昌孝

古里원자력발전소 운전실적및 전망

한국전력 고리원자력 본부장

鄭 甫 憲

◇ 原子力 5.6 호 건설 月内 차관계약 체결

原子力發電所 5.6 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이 本月内에 체결된다. 金榮俊 韓國電力社長은 11月 8日 차관계약을 위한 歐美순방길에 올라 16일에는 英國 라자드 은행과 9천 2백만달러, 20일에는 美國輸出入銀行과 8억 2천 9백 60만달러의 차관협정에 조인할 예정이다.

◇ 原子力研究所 새 非破壞 檢査裝置 開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최근 대형정밀제품의 비파괴검사에 사용되는 대단위 감마선비파괴검사장치를 새로 개발했다. 동연구소 공작실(실장 黃昌奎)에 의해 제작된 이 장치는 정밀제품의 溶接, 鍛造鑄造 부문등의 内部構造와 제품안에 장전되는 부품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로 일시에 많은 량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非破壞檢査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있다. 또 모든장치가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재래식 장치에 비해 3~4 배의 효율을 가져온다고 한다.

◇ 韓電, 13억弗 借款 도입

美輸銀등서 核發電시설 擴張위해

「홍콩: AP 合同」 韓國電力은 핵발전시설확장을 위해 아시아에서 단일기업으로는 최대규모인 총 13억여달러의 대규모 借款을 체이스 맨해튼 아시아은행을 비롯한 은행차관단, 美輸出入銀行등으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13일 체이스, 맨해튼 아시아은행이 발표했다,

韓電의 이같은 차관은 美체이스, 맨해튼銀行의 子銀行인 체이스 맨해튼 아시아 은행을 비롯한 40개 銀行공동차관단이 제공하는 4억달러의 유러달러차관, 美輸出入 은행차관 7억3천2백만달러, 美 민간수출기금 차관 9천7백만달러, 英國輸出保證省 보장차관 1억2백만달러등으로 구성되어있다.

銀行共同借款團이 출자한 유러달러 차관협정은 13일 홍콩에서 成樂正 韓電副社長과 G.P.브로치 아시아, 체이스, 맨해튼 은행총재 사이에 조인되었으며 美輸出入銀行과 民間수출기금 차관협정은 워싱턴에서 英國수출신용보증차관 협정은 런던에서 각각 2, 3일안에 조인될 것이다.

체이스, 맨해튼은행은 이 借款들이 古里원자력발전소 건설을위한 장비 및 기술용역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러달러차관은 10년 만기에 6개월에 1%의 利率로 제공되며 韓電이 정부보증없이 도입하는 최초의 借款이라고 말했다.

◇ 電力수요 5백만kw 돌파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량이 최초로 5백만kw를 돌파했다. 10일 動力資源部에 따르면 9일 하오 6시 15분 瞬時 전력 수요가 5백만 9천kw를 기록, 15개월만에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1백만kw가 늘어났다. 이는 산업발전에 따른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아스팔트固化처리식 放射性廢液試驗工場 完工

韓國原子力研究所는 原子力發電所의 原子炉시설에서 배출되는 고체, 액체, 기체등 방사성 폐기물중 액체폐기물을 「아스팔트」와 混合, 固化處理하는 시설인 방사성 폐액 「아스팔트」 固化처리 시험공장 (파이롯플랜트)을 국내 최초로 完工, 방사성공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됐다. 지난 11월 18일 同研究所에 따르면 李想薰 방사성오염 처리실장 팀이 원자력발전소에서 核分裂로 발생하는 방사성공해 예방을 위해 75년부터 연구에 착수 약 4년만에 完工을 거둔 이 방사성 폐액 「아스팔트」 固化처리시험공장은 액체 폐기물과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攪拌膜증발기를 비롯 응축기, 충전탑, 熱매체가열기등 4개의 주요 機器로 되어있다. 이는 선진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固化처리 시설과 비교, 폐기물의 부피를 5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는데다 폐액과 혼합되는 응집력도 1백배나 높아 폐기물을 장기 보관할 수 있어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古里1号機의 폐기물처리 시설인 「시멘트」 고화 처리방법을 「아스팔트」 고화처리로 代替할 경우 연간 1천드람씩의 폐기물을 2백드람으로 감소할 수 있게된다. 한편 이번 시험공장건설의 성공으로 관련 기술의 축적은 물론 「아스팔트」 고화처리장치의 표준화및 국산화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된다.

◇ 原子力専門要員 1만명 養成

-- 86년까지 총 24억원 들여 --

원자력연구소는 오는 86년까지 고급기술자, 중견및 초급기술자 기능자등 원자력전문요원 1만2천800명이 必要할 것으로 분석하고 이중 既存要員 1천10명의 9배에 달하는 9천2백70명을 양성키 위해 총 24억원을 들여 각종 實驗, 實習器와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專任教授制를 신설하고 현행 연수훈련과정을 대폭修正할 계획이다.

◇ 現代洋行 西海火電 1.2호기 機器供給

각 20만kw 시설容량의 西海火力發電所 1.2호기 機器供給은 國內 現代洋行이 맡기로 韓國電力과 現代사이에 契約을 체결했다. 턴키베이스로 한전이 실시한 國際入擦에서 當會 會員社인 同社は 日本의 日立, 三菱등을 제치고 낙찰 했는데 국내 발전소에 국내

메이커가 주요設備를 공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内外資 총 8백 82억 원이 소요되는 동설비를 現代는 81년과 82년까지 모두 納品키로 했는데 性能보장을 위해 기술제휴선인 美国의 EC (터빈 제베레이터 부문)와 컴버스천 . 엔지니어링 (보일러 부문)이 共同으로 싸인 했다.

◇ 燃料機器 형식승인 熱管理協會로 이관

13일 정부는 연료사용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의 能率化를 위해 연료사용기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韓國熱管理協會에 위탁 처리키로 했다. 經濟長官회의는 열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